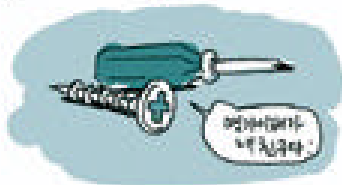


# 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

## 필립의 십자(+)나사물, 친구인 김민재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십자(+) 나사물과 드라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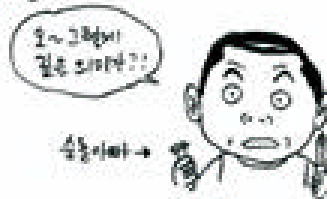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 가운데 탄생한 십자 나사물과 드라이버는 조그만 전파실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필립'이라는 미국인 소년에 의해 개발되었다.



1년후 전파실의 기술자 한명이 나가자 사립학교에 진학중인 필립에게 기술을 가르키기로 했다.



이것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개념의 의미가 만들어낸 훌륭한 발명품이다.



미국의 작은 도시 외곽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라온 필립은 전파실에 취업하여 기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간이 지남수록 필립의 실력은 점점 빛을 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필립에게  
근처의 고민머리가 생겼는데.

이런 1자 물머리 양자  
어렵잖아!



그날 이후부터 필립의 머릿속엔 온통  
1자 나사물 생각뿐이었다.

1자 나사물의 불편함을  
개선시킬 방법이 뭐 있을까?



필립은 드라이버 역시도 십(+)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와우! 나사물 머리의 마모도  
훨씬 적고 빠르고 박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었다!



1자 나사물의 흠이 많아져 버리면,  
숙려하는데 보통의 두세배 정도가량 시간이  
소모되었다.

1시간 만에  
나사물 하나  
박는다



한동안 고민을 해오던 필립의  
머릿속에 '완벽'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때: 흠을 하나 더 만드는게야!  
금쪽 흠이 마르면 대용량의 흠을  
사용하도록 하는거지!



그는 곧 특허출원을 했으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다 '필립'이라는  
주권을 세우고 십자 나사물과 드라이버를  
직접 생산하기까지 했다.

